미국에서의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와 위해성관리에 관한 실무사례 연재V

박재주/ 환경관리공단 기술이사

4. 제1단계및 제2단계를 통한 전체적인 결론

이상 제2단계의 검토내용의 개요를 나타내지만, 제2단계 보고서의 최후에 전체를 통한 결론에 따르므로 이하는 그 수요를 살펴본다.

IEMP의 목적은 환경의 위해관리 수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초기적 검토와 환경문제에 관한 의지결정때문에 실용적인 수단의 검토를 실시하게 된다.

즉, ① 우선순위의 설정과 의지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유효한 해석 ② 위해에 관한 정보교환, 토론, 합의형성때문에 위원회의 설치 ③ 위해성관리나 계속적인·총합환경관리계획의 실시의 기초의 확립을 기도하고 있다. 이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4.1 의지결정 지속을 위한 해석

IMEP에서는 광범위한 문제에 관한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대량의 데이타에서 문제의 비교, 위해관리의 우선순위의 설정, 위해관리의 의지결정에 관한 협력의 제정등은 백엎시켜 배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제1단계에서는 지하수및 사료수 오염에 의한 위해의 특징이나 정도를 밝혀서 트리하로메탄에 의한 위해나 자가용정호의 오염위해를 개괄한 것외에 대기중의 유해물질에 대한 폭로의 중요성도 나타내었다.

제2단계는 지역적 유해물질대체의 이용가능한 지역선정, 주민건강과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하수관리 기초의 책정, 선도 대기오염물질(기규제물질)에 의한 건강위해성평가, 대기및 사료수오염에 대한 코스트적으로 유효한 규제수단 확립, 새로운 환경관리조직의 구축보조등을 위한 해석을 한다.

국가적 관점에서는 산타크라라 바레 IEMP는 위해성평가나 위해관리수법의 진보에 힘입어 또 국가적인 대체안에 유효한 결과나 고찰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 프로젝트로 직면하고 있는 과학적 및 데이타면에서 한계를 설정하고 조사연구의 우선순위를 부쳐나가는 것이 큰 성과를 거들것이다.

4.2 주민참가와 교육

IMEP는 위해에 관한 협의, 주민참가와 각기관의 협조촉진등의 점에서 큰 성과를 올린다.

산타크라라지역의 지도자에 의한 환경문제의 의논은 건강·위해성에 관한 통일된 용어로 이룩되도록 세련된 수준으로 되었다. 그러나 협의나 회화 (대화)의 점에서는 성공한 것의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이것을 IEMP는 주민교육을 장래의 위해성관리의 우선과제로서 위치를 정하고 있다.

4.3 규제의 효과

환경문제에 관하여는 대개 많은 기관이나 집단